

## 포스코DX, 장애인 유튜브 공모전 열어

포스코DX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꿈을Green다'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콘텐츠를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꿈을Green다'는 포스코DX가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을 활용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립공원공단, 월정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상 기획·촬영·편집 교육을 제공하고 공모전과 후속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포스코DX



## 카카오, '2027 점자달력' 8000부 무료 배포

카카오는 4일 '2027 카카오 점자달력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8000부를 제작해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김혜일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DAO, 오른쪽)가 국립서울맹학교 정은영 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 CU, '우리 부대 응원 캠페인' 통해 간식차 지원

CU는 하나은행·하나카드의 하나나라사랑카드와 함께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포켓CU에서 진행한 '국군의 날, 우리 부대 응원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군종별 최다 응원을 받은 총 4개 부대에 간식을 지원한다. /CU



## 스타벅스, 수능 앞두고 응원 선물 수요 공략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출시한 수능 기프트 시리즈가 수험생 응원 선물로 관심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프트 푸드는 초콜릿과 찰떡, 쿠키 등을 활용한 5종으로 구성했다. 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상품은 '인절미 찰떡파이'다. 개별 포장과 수능 시즌 한정 패키지를 적용해 선물용으로 기획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 명지전문대
## 글로벌 AI 해커톤 연다

1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공지능(A) 로봇을 만들어 동네 현안을 해결하고, 중남미 청년들과 아이디어를 겨루는 이색 해커톤이 열린다.

명지전문대학교 AI융합서비스학과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에서 지역사회 A1 리빙랩 'Step A1 Camp'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와 중남미의 볼리비아·코스타리카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는 글로벌 해커톤 방식으로 치러진다.

주제는 우리 동네 문제다. 학과 협약 기업들이 제시한 돌봄, 안전, 환경 분야의 실제 지역 문제를 다룬다. /김수정 기자

# 금투업계, 김치 80톤·3억9000억 기부 '역대 최대'

### 금융투자협회 '사랑의 김치페어' 86개사, 임직원·봉사자 1000명 초록우산 통해 200여곳에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16회 사랑의 김치페어'를 개최했다. /허정윤 기자

주식과 채권을 다루던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이 배추를 손에 들었다. 회사 대표부터 직원까지 함께 버무린 김치 80톤은 어려운 이웃의 겨울 밥상에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16회 사랑의 김치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 등 86개사가 기부에 동참했다. 이 가운데 74개사 임직원과 봉사자 등 약 1000명이 현장을 찾아 김장을 함께 했다. 각 회사 대표들도 앞치마와 위생모를 착용하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일손을 보탰다.

이번 행사로 마련한 기부금은 약 3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3억4200만원보다 4800만원 늘었다.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도 지난해보다 6000kg 증가한 8만kg으로, 참여 기업과 기부금, 김치 기부량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김치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을 통해 전국 200여개 사회복지시설과 아동양육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김치페어는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011년 시작됐다. 2014년 48개사, 470여명이 참여해 김치 1만7500kg을 전달했던 행사는 올해 참여 기업이 86개사로 늘고 김치 물량도 4배 이상 확대됐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김장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을 자본시장의 장기투자에 빗댔다. 황 회장은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깊은 맛을 낸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지향하는 장기투자와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회사의 정성과 임직원 여러분의 손길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의 방법을 꾸준히 발굴하고 실천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투자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김장 나눔 외에도 취약계층 생활 지원과 장학사업, 금융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기 적립금 지원과 청년·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AS부문 '1위'

### 한국서비스품질지수 2년연속 1위 에어컨 원격 상담으로 문제 해결

삼성전자서비스가 에어컨 이상을 미리 점검하고 원격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AS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에어컨 사후서비스(AS)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에어컨 AS 부문에서 첫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자리를 지켰다.

KS-SQ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 평가 모델로, 해당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조사에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 신뢰도, 사회적 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에어컨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앞서 제품 이상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에어컨 원격 상담을 받은 고객 10명 중 6명은 엔지니어 방문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4일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이 KS-SQI 에어컨 AS 부문 1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원격진단은 가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진행한 에어컨 사전점검에서는 인공지능(AI) 진단으로 냉매량과 모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의 원격 상담으로 연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LG AI연구원, AI로 저작권 침해 분석

### '엑사원 넥서스' 개발 공로로 ICOTEC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LG AI연구원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저작권 기술상을 받았다. 회사는 자체 AI 모델 개발에 적용한 이 기술을 글로벌 빅테크와 로펌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6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의 저작권 기술 어워드에서 '엑사원 넥서스(EXAONE Nexus)' 개발 공로로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엑사원 넥서스는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과 이용허락 조건,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에이전트다. AI 학습 자료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응하고 사람이 방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LG AI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터셋 1건을 분석할 때 법률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보다 속도는 45배 빠르고 정확도는 26% 높았다. 분석 비용은 기존 방식의 약 1000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에는 한국의 AI 기본법과 유럽연합(EU)의 AI법 등 주요국 규제를 반영한 자체 검증 체계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의 법률적 타당성은 국내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40여 명과 협력해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분석한 공개 데이터셋 2만여 개의 위험 평가 결과는 학계와 연구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넥서스를 자체 개발하는 모든 AI 모델의 필수 검증 절차에 포함해 데이터 수집·정제부터 모델 개발과 서비스 배포까지 전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요가 높은 글로벌 빅테크와 로펌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 韓 OECD 가입 30주년… 교육과제 모색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오늘 '韓-OECD 국제토론회'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교육 성과를 되짚고, 미래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6 한-OECD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조연설은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이 맡는다. 슐라이허 국장은 한국의 고등교육 확대와 학업 성취를 돌아보고, 읽기 성취 하락과 디지털·AI 활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OECD 교육통계의 정책적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OECD의 주요 교육통계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국제 교육협력의 의미를 짚는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최근 읽기 성취 하락, 학생 간 성취 격차를 분석한다.

오후에는 '대전환의 시대, 한국 교육의 새로운 30년'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좌장을 맡고, 스탠턴 윌섬 보스턴칼리지 교육대학장, 서울대 조영태 인구정책연구센터장, SK하이닉스 박한울 글로벌 인재 담당 부사장, 서울교대 신승기 정보교육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 노사발전재단, 퇴직자 재취업 컨설팅

### 네이버·中企 IT 기업 '온품' 40세 이상 근로자 40여명 대상

노사발전재단이 네이버와 중소 IT업체 등 2곳에 퇴직자 재취업지원 관련 컨설팅을 실시한다,

재단은 4~5일 이틀간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및 중소 IT기업 ㈜온품의 40세이상 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IT 업종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재단과 네이버가 체결한 'IT 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및 중장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처다. 네이버와 온품이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에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인 사**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육부장 원철스님 △미디어홍보실장 석두스님 ◇불교신문사 △주간 각진스님

**부 음**

▲오동일(향년 62세)씨 별세, 홍미향씨 남편상, 오상민(부산일보 사회2부 기자)·오혜진씨 부친상 = 4일 오전,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5호, 발인 6일 오전 7시. 052-241-1440.

▲박경한(향년 93세)씨 별세, 박균섭·균철·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최정희·고지연·이병희씨 시부상, 박창용·전용·민용·소영·승민·주영·해강·정훈씨 조부상 = 3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빛 장례식장 3층 특1호실, 발인 6일 09시, 장지 함평 나산 선영. 연락처 062-452-4000.